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4 장



불타는 함대 처럼 , 햇불을 든 무리가 검은 언덕 위로 떠다녔다.

나사로는 그 중심부에서, 조여오는 사슬의 중력 아래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능선 꼭대기에 오르자 나사로는 멈춰 섰다. 그는 귀를 뒤로 젖히고, 크게 벌어진 동공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졌다.

그의 앞에는 땅이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가더니, 탁 트인 풍경 속에 다음 고원의 정상 에 거대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 성의 견고한 성문 앞에는 햇불들이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다. 군중은 성벽을 둘러싸고 수백 미터 깊이까지 펼쳐져 있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드문드문 흩어져 초가지붕을 엮은 집들이 줄지어 늘어선 사이로 흩어져 있었다. 한 병사의 손이 나사로를 재촉하여 아래로 내려갔다.

얇은 언덕.

"대열을 갖춰라! 무기를 준비해라! 위치를 사수해라!" 호위대 사령관이 고함을 질렀다. 병사들은 햇불을 내던지고 라자로 주위로 몰려들어 흩어진 대형을 견고한 사각형으로 바꿨다. 방패는 가장자리를 향해 높이 들려 사각형을 에워쌌고, 창은 군중을 향해 뾰족하게 뻗어 있었다.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마라! 대열이 무너지면, 죽여라!"

겉보기에 위압적이었던 수비진이 일제히 앞으로 이동했다.

군중은 폭풍처럼 쉴 새 없이 함성을 질렀지만, 일행이 가까워질수록 천둥소리는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와 타닥거리는 햇불 소리만이 고요한 밤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침내, 그 적막 속에서 햇불의 바다가 갈라졌다. 마치 사해처럼 잔물결이 일렁이며 성문으로 곧장 뻗어 있는 길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마도 라자로는 수많은 시선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그는 시선을 떨구고 새롭게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걸어갔다. 무거운 쇠사슬이 그의 발걸음마다 짤랑거렸고, 궁수들이 일행의 행렬을 위해 길을 닦았다.

군중은 웅성거렸고, 뒤쪽 사람들의 소음이 점점 커져갔다. 구경꾼들은 욕설을 퍼부었다. 그때 머리 위로 돌맹이가 날아와 나사로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그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목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석궁병이 돌을 던진 자를 화살로 쏘아 떨어뜨렸고, 젊은 농부는 쓰러졌다. 이 행동은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급히 두 병사가 나사로를 들어 올렸다. 그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 비틀거리며 그들 사이로 나왔다. 지휘관은 모두에게 경고했지만, 고함치는 군중의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갑자기 성으로 향하던 길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한 주먹과 휘두르는 햇불에 완전히 휩싸였다.

악마의 왕이자 악의 왕자로 여겨진 나사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온갖 고통을 떠올리며 그에게 침을 뱉었고, 번개가 쳤다. 남자들은 고달픈 삶의 여정을 회상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휘둘러졌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아래에서, 신이 난 아이들은 돌맹이를 쏘고 있었다. 창들이 피 튀기는 현장에 꽂혔다.

달시쿠르 경의 병사들은 악마에 굶주린 군중을 물리쳤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더 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진형 안에서 병사들이 서로를 배신하면서 대열이 무너지고 군중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분노한 팔들이 나사로를 붙잡아 높이 들어 올린 후, 그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흔들었습니다.

저주와 비명 소리. 그는 사슬에 묶인 미라처럼, 사지를 뻗은 채 격렬한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고 있었다. 무작위로 터져 나오던 외침들이 모여 리드미컬한 함성을 만들어 온 땅에 울려 퍼졌다. "악마를 불태워라! 악마를 불태워라!" 나사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하고 발버둥 쳤다. "악마를 불태워라!" 군중들이 외쳤다.

순식간에 울려 퍼지는 전투 나팔 소리가 분노를 잠재웠고, 모든 시선이 성을 향해 쏠렸다.

성벽 위로 궁수들이 달려가 자리를 잡고 화살을 군중을 향해 겨누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갑옷을 입은 기병대가 칼과 함께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나왔다.

햇불의 바다 속에서 방패들이 빛났다. 군중은 마치 햇빛을 피해 도망치는 쥐떼처럼 흩어졌다.

나사로를 떨어뜨렸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가운데, 죽은 자와 부상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달시쿠르의 궁정 경비병들이 나사로를 에워싸고 돌렸다.

바깥쪽으로, 측면으로, 방패를 높이 들고 돌격했다. 두 기사가 말에서 내려 라자로를 배를 아래로 한 채 말에 싣고 내렸다.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일제히, 그리고 돌격했던 것처럼 재빨리 성벽을 뚫고 성문을 닫으며 되돌아갔다.

성벽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의식을 잃은 엘조를 말에서 내려 깊은 안뜰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구덩이 맞은편 벽에는 지하, 즉 성 아래로 통하는 철문 하나가 서 있었다. 문 양쪽에는 쇠사슬에 묶인 두 죄수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새로 들어온 손님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둘 다 덩수룩한 수염을 기른 단정치 못한 모습이었지만, 한 명은 금발에 넓은 등, 푸른 눈을 가진 훨씬 더 큰 체격을 자랑했다. 그는 라자로보다도 훨씬 더 컸고, 어쩌면 라자로보다도 더 커 보였을지도 모른다.

거구의 남자가 자신보다 작은 감옥 동료 옆에 서 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새벽이 밝아오자, 나사로는 두 죄수 사이의 대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였다. 덩치가 큰 남자가 외국 억양이 섞인 깊은 목소리로 비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게 네 사탄이라면, 왜 스스로 묶여 구덩이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냐? 대답해 봐!"

작은 자가 대답했다. "글쎄, 사탄 그 자체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 악마일 거야. 지금은 잡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저 쇠사슬에서 풀려나 우리 모두를 죽일 거야!"

"그건 네 사탄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그건 나이트 알프라고. 모든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 하나. 그리고 저 쇠사슬에 묶여서 는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

나사로는 몸을 돌려 눈을 번쩍 뜨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는 피로 영긴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털어내 왼쪽 눈썹 위 높은 곳에 난 심한 상처를 드러냈다. "맙소사." 그는 신음했다.

키가 작은 죄수는 쇠사슬에 묶인 채 몸부림치며 말을 더듬었다. "보세요! 저기 가버렸어요!" "악마야!" 그는 구덩이 가장자리 근처를 서성이는 경비병들에게 애원했다. "우리를 꺼내 줘! 악마가 깨어났어!"

"조용히 해!" 한 병사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나사로를 바라보다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한가롭게 돌아서서 떠났다.

"그래," 덩치 큰 죄수가 작은 죄수에게 쏘아붙이며 불평했다. "조용히 해! 네 비명 소리는 조그만 꽃이나 지를 법해." 작은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콧방귀를 꺾더니 벽에 등을 기대고 뺨뺨하게 앉아 팔을 무릎 위에 축 늘어뜨렸다. 아마도 그런 반항적이면서도 무심한 모습으로 자신의 체면을 되찾으려는 듯했다. 그는 멀리서 라자루스를 노려보았다.

마침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나사로에게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악마야, 네가 찾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는 덩치 큰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찾는 자는 바로 저 사람이다. 북쪽 사람, 즉 기독교인이다."

이교도."

나사로는 자신을 변호하며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북쪽 남자는 기독교인에게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못 들었나? 그는 악마가 아니야. 내가 그가 뭔지 말해줬잖아."

"내 이름은 라자루스 고구입니다." 라자루스는 자신의 사슬을 살펴보았다.

"고구, 아마도." 북쪽 남자는 몸을 뒤로 기대며 비웃었다. "하지만, 밤의 알프 고구, 너는 여전히 그거야."

그 기독교인은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면 왜 악마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게 내 출생 방식이야. 난 남자야. 다만 남들과 다를 뿐이지."

"남자라고? 겨우?" 북쪽 남자는 껄껄 웃으며 기독교인에게로 돌아섰다. "나이트 알프는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른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자일까 아닐까?" 그는 웃었다.

라자루스가 북쪽 사람에게 "나이트 알프가 뭐냐?" 라고 물었다.

"너!" 그가 쏘아붙였다. "만약 네가 내게 가까이 온다면, 네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라자루스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독교인이 말했다. "그는 북방 사람입니다. 그의 부족은 밤의 요정이 해질녘 숲을 배회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라자루스가 물었다.

북쪽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알프가 내가 기독교인인지 알고 싶어 하더군." 그는 역겹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사루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북쪽 남자는 쑥 튀어나와 나사루를 노려보았다. "안 돼!" 그는 구덩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는 결코 그런 거짓말을 삼키지 않겠다!"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독교인이 그에게 경고했다.

북쪽 남자는 그를 흘끗 쳐다보고 입술을 비비며 벽에 기대앉았다. "내

죽음이여, 나의 자리는 오딘의 식탁이 될 것이다. 음식과 술, 노래, 그리고 처녀들이 가득한 전당 이 될 것이다.

발할라에나 가라. 어린아이들을 겁줘서 겁쟁이로 만드는 네 어리석은 이야기는 집어치워."

"당신은 신화를 믿는군요." 기독교인이 대답했다.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요. 오딘도 없고 신성한 궁전 도 없다고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말고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북쪽 남자는 몸을 숙여 기독교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그의 머리를 확 잡아당겼다. 그는 그의 얼굴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말조심해! 내 아버지와 형제의 땅에서, 너희 같은 자들이 그보다 못한 말을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는 너희 기독교인들 중 한 명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 땅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면 모두 가 너를 '오딘의 신성모독자' 로 여기고 네 목을 베려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요."

나사로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 둘은 어찌하여 이 구덩이에 있느냐?"

북쪽 남자는 동료 풀어주고는 뒤로 기대앉았다. "우린 여기 안에 있어, 알프."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말을 훔쳤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자기방어를 했을 뿐이야." 기독교인은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가 먼저 나에게 그림을 그렸어요."

"네가 그의 말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너에게 총을 뽑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네가 병사들을 내가 자고 있던 곳으로 유인했잖아! 이 멍청아! 난 걷는 게 지쳤다고 했지, 말을 훔치라고 시킨 적은 없어!"

"아니, 아니, 아니," 기독교인이 불쑥 말했다. "그들은 당신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난 당신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는 북쪽 남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당신은 나를 안다고 인정했고, 심지어 말까지 했잖아요."

오딘에 대한 그 어리석은 생각, 진실에 얽매인 자여. 자네를 파멸로 이끈 것은 바로 자네의 그 어리석은 믿음 이지, 내가 아니네!

북쪽 남자는 항의하듯 사슬을 휘두르며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 신념에 맹세코,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원수의 손에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내일 우리가 교수형에 처해질 때, 발키리가 나를 데려가고 너는 썩어 문드러지도록 내버려 두리라.

그 기독교인은 그를 꾸짖으며 "우리가 교수형에 처해질 때, 너는 네 거짓된 믿음 때문에 지옥불에 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수형에 처해졌다고요?" 라자루스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우리는 내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라고 그 기독교인은 고백했다.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북쪽 남자가 쏘아붙였다. "단지, 내가 여행을 떠난 게 실수였을 뿐이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뱀 같은 너와 함께했는데도! 그리고 내 적들 앞에서 내 신념을 지켜줘서 고마워! 오직 그것뿐이야!"

"하지만 저는 달시쿠르 경을 보러 온 겁니다." 라자루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교수형을 당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니, 알프. 넌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북쪽 남자는 하늘을 힐끗 쳐다본 후 비꼬는 말투로 그를 안심시켰다. "곧 아침이 올 거야. 동이 틀 무렵이면 네 몸은 교수형에 처할 흔적조차 남지 않을 테지." 그는 거만하게 웃었다. 라자루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붉은빛으로 윤곽이 드러난 얇고 가느다란 구름을 발견했다.

"조용히 해, 이교도야!" 한 병사가 소리쳤다. 나사로는 쇠사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당신이 그를 화나게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물었다.

북쪽 사람은 여전히 낄낄거리며 대답했다. "친구여, 당신과 내기를 하나 하죠." 그는 기독교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내 백성의 말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믿음이 내 믿음과 대립하는 것이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념은 내기를 걸 수 없다."

"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민족이 옳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버리고 오딘의 식탁에 우리와 함께 앉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니,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군요.”

“나는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기 내용은 뭐죠?”

“내 백성의 말로, 오딘과 로키의 진실로 맹세하건대, 이것은

“그는 나이트 알프지, 네 악마 중 하나가 아니야.” 그는 라자루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이트알프가 아니야!” 라자루스는 여전히 숙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씩씩거렸다.

하지만 북쪽 사람은 말을 이었다. “곧 그도 모든 나이트 알프처럼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낮에는 땅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태양이 내리쬐면 타버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그가 불타는 것을 볼 때, 내 백성의 신앙에 충성을 맹세하겠느냐?

오딘에게?”

기독교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균형을 잃었군요.” 그는 나사로를 흘끗 보고는 턱수염을 굽적였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처럼 그도 분명 불에 타 죽을 거야.” 북쪽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기할래, 말래?”

작은 녀석이 꺾꺾 웃었다. “아니, 아니, 아니—내기를 하자. 대신 내가 네 영혼을 구해줄게. 네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태양에 타 죽는다면, 내 영혼을 네 오딘에게 바치겠어.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야.” 그는 웃으며 큰 친구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그리고 만약 그가 타 죽지 않는다면, 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네 오딘 신과 네 민족의 신앙을 버려야 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죽으면, 넌 영원히 내게 감사하게 될 거야.”

북쪽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거야!” 그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럼 내기하자! 좋아!”

“좋아.” 기독교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 두 사람은 벽에 기대어 나사로가 필사적으로 팔을 풀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엘조는 벽을 타고 올라가 일어섰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내 영혼을 걸고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을 흘끗 본 그는 다시 자신의 사슬 쪽으로 돌아섰다.

기독교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내기라면 질 수도 있는 법이지.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변호하는 입장이니, 난 질 수 없어. 게다가 너 같은 놈에게서 또 한 영혼을 구했으니, 이번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야.” 기독교인은 씩 웃었다.

“더 이상 속임수는 그만둬, 알프.” 북쪽 사람은 나사로를 조롱하며 윈크했다. “태양이여, 그는 오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재와 먼지가 될 뿐이다.”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가 굉음으로 커지면서 병사들은 참호 능선을 에워쌌고, 그들의 석궁은 장전된 채 준비태세를 갖췄다.

“모두 엎드려!” 병사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엎드려!” 나사로와 기독교인은 구덩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북쪽 사람은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얼굴을 찌푸렸다. 병사가 고함을 질렀다. “모든 포로 확보!”

광! 삐걱! 철제 구덩이 문이 활짝 열리더니 무장 경비병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과 이교도 포로들을 벽에 밀어붙였고, 나머지는 나사로에게 물려들었다.

“일어나라! 어서!” 그들은 라자루스를 재빨리 철문을 통해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갑옷과 칼이 휘몰아치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햇불과 창병, 궁수들이 늘어진 지하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지하 통로 문이 그의 뒤에서 광 닫히고 복도 위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하 통로 문 확보 완료!” 경비병들은 라자루스를 구불구불한 지하 미로 속으로 끌고 갔다.

호위병 중 한 명이 "멈춰!" 라고 외쳤다. 병사들은 그를 문 쪽으로 돌려세우고 쇠사슬을 더욱 세게 조였다. "안으로 들어가." 라자루스는 순순히 따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떠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가 점점 사라졌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무덤처럼 차가웠고, 오래된 밀랍과 축축한 돌이 썩어가는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어둠한 직사각형 방을 훑어보았다. 길고 투박하게 다듬은 탁자가 바닥 중앙에 세로로 놓여 있었고, 양쪽에는 같은 길이의 벤치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탁자 양 끝에는 촛대 두 개가 타고르고 있었는데, 가까이 있는 촛불은 높이 솟은 불꽃이 밀둥 주위로 춤추는 듯한 원을 그리며 퍼져 나갔다. 멀리 있는 촛불은 빛을 내지 않았지만, 심지에서 희미한 붉은빛이 새어 나왔다. 소용돌이치는 연기 아래, 방 한쪽 구석 바닥에는 조잡한 짙은 매트리스가 널브러져 있었다. 반대쪽 구석에는 썩어가는 쥐 한 마리가 납작하게 누워 있는 모습이 언뜻 보였다. 라자루스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며 등에 걸린 쇠사슬을 굶었다. 그는 매트리스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모든 기억을 끝없는 꿈의 세계에 맡겼다.

~*~

그러나 마치 찰나의 순간처럼 그의 꿈은 사라지고 문이 활짝 열렸다. 그의 눈도 함께 크게 떠졌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똑바로 앉아 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밝은 빛에 눈을 가늘게 떴다. 하인 두 명이 7단 촛대를 들고 들어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이 다 쓴 촛불을 들고 나가자 병사들이 줄지어 들어와 맞은편 벽을 따라 늘어섰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몇 명이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꽤 크고 가<binary data, 3 bytes>픈 중년의 대머리 주교가 화려한 예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라자로와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그의 불안한 눈빛에는 경계심이나 심지어는 망설임까지 엿볼 수 있었다. 그의 뒤로 경비병들이 문을 닫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경비를 섰다.

서기관은 탁자 앞에 멈춰 서서 나사로를 응시한 후 주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정말 악마 같은. 저것 좀 봐—이빨도, 귀도—게다가 박쥐 날개까지 달렸잖아."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라고 나사로가 반박했다.

주교는 서기관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딱한 이유 없이 그를 고발하지 마라.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서기관과 주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라자로가 병사들의 불안한 얼굴을 살피는 동안 일부러 방 안을 움직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열을 바꾸면서 울려 퍼졌고, 신선한 땀 냄새와 다 탄 양초 기름, 타버린 심지의 달콤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기관은 한숨을 쉬고 잉크병, 깃펜,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탁자에 앉았다. 라자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불안해하는 경비병들은 라자로가 벽에 등을 기대자 무기를 움켜쥐었다. 서기관은 종이를 펼치고 깃펜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던져 종이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나사로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심호흡을 했다.

"이름이 있으십니까?" 서기관이 그에게 물었다.

"나사로. 나사로 고구." 깃펜이 휘갈겨 썼다.

"나사로 고구야, 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고백하겠다고 맹세하느냐?"

"나는 진실을 말한다."

"좋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를 섬기느냐? 어떤 주님과 왕을 섬기느냐?"

그는 서기관에게 대답했다.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이며 왕이신 분을 섬깁니다." 의심스러운 눈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서기관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까? 어느 귀족과 국가에 충성을 맹세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주교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요."

필경사는 글쓰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더 나아가 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요."

"인간은 날개가 없지." 그는 비꼬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봐. 넌 정말 날 수 있는 거야?"

"예."

필경사는 글을 쓰면서 그에게 다시 물었다. "한 번에 얼마나 멀리 날 수 있습니까?"

라자로가 대답했다. "저녁 반나절 정도면 될 것 같소. 이제 쉬어야겠소." 그러나 펜촉이 굳어버렸고, 서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과 굳은 입술로 몸을 뒤로 젖혔다. 눈을 크게 뜬 몇몇 경비병들이 웅성거렸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주교가 그들을 바로잡았다. 그는 라자로에게로 돌아섰다. “라자로, 당신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고난받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요."

"좋다." 신부는 방을 서성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군."

서기관이 물었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누구시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자로는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교를 바라보았다.

주교는 몸을 돌려 서기관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합시다."

"좋습니다." 서기관은 눈을 굴리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살인을 저질러 본 적이 있거나 전투에 참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깃펜을 물에 담갔다 가 흐든 다음 나사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살인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빨은 개처럼 생겼군. 말해 보거라, 고기를 먹느냐?"

"저는 그랬어요. 제 말은 "

서기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라자로를 추궁했다. "하지만 고기를 먹으려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은근히 비난하듯 펜촉을 옆조에게 겨누었다. "혹시 지금 이 공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시오." 주교는 부드럽게 손을 흔들어 서기관을 제지하며 말했다. "혼란을 일으킬 필요 없으니, 그가 말하게 하시오."

나사로는 고백했다. "내가 들짐승 몇 마리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물들에게! 나는 배가 고팠는데 빵이 없었어!

서기관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아니요, 빵이요?"

"없어요. 숲에서 곡식을 하나도 못 찾았어요. 곡식 없이는 빵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빵 먹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서기관은 휘갈겨 썼다.

"아니요, 저는 빵을 좋아하지 않아요."

서기관은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빵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 거룩한 이름으로 빵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주교는 헛기침을 하고는 불룩한 배 아래에 손가락을 모은 채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기독교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신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훌륭한 답변이군." 능글맞게 웃는 주교는 두 손을 비비며 돌아섰다.

미동도 없이 앉아 있던 서기관이 말했다. "그의 대답을 기록하셨죠?"

서기관은 “그러나 괜찮으시다면, 그분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주교는 탁자에 몸을 기대며 그를 꾸짖었다. “지금 당장은 말이야.”
“그의 대답을 기록하세요.”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양피지를 가리켰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서기관은 뾰루통했지만, 깃펜을 담그고 순종했다. 주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사로에게 돌아섰다.

필경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다음 질문을 던졌다. "당신 같은... 음... 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있습니까?"
"아, 그렇죠." 친절한 주교가 끼어들며 말했다. "분명히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간절한 기대감에 입술을 오므렸다.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예요.”
"너희는 한 명뿐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신부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장 큰 턱을 쓰다듬고는 실망감을 바닥에 내던졌다.

필경사는 양피지에서 또 다른 질문을 소리 내어 읽었다. "당신은 사용법을 아십니까?"
칼, 활, 또는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예전에 뼈로 칼을 만든 적이 있어요. 가죽이나 고기를 자르는 데 썼죠.” 라자루스가 말했다.

주교는 라자로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살폈다. 라자로의 기도 십자가를 발견 하고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튀어나온 사슬을 옆으로 치웠다. "이거 어디서 났지?"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계속해서 살펴봄, 자기중심적인 뚱뚱한 남자들이 흔히 그렇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 수 도사님이 주신 기도 십자가죠."
뚱뚱한 신부는 창백하고 가느다란 소시지 같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굴리며 닳아빠진 모서리를 살폈다. "그래. 수도사만이 기도 십자가를 이렇게 닳게 할 수 있지. 자네 말을 믿네, 라자로." 주교는 그에게 은근히 윙크를 하고는 경비병들에게 돌아섰다. "충분히 봤군. 그들을 내보내라."

서기관은 일어서서 깃펜으로 잉크병을 쿡 찌르며 말했다.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에게서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 저는 그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교가 대답했다. 그는 나사로의 가슴에 단단히 묶인 목걸이의 사슬을 잡아당겼다. “십자가가 이 사슬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가 결박되기 전부터 십자가를 차고 있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마는 절대 십자가를 차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제는 나사로를 가리키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날아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방의 주교로서 다음과 같은 권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그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반대 의견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서기관은 테이블을 돌아 주교에게 속삭였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방 저 멀리 텅 빈 구석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자루스는 귀를 쫓긋 세웠다. 마치 사적인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서, 서기관은 주교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을 속삭였다. "악마라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나 빛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제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미묘한 순간을 망치면 달시쿠르 경계서 당신에게 그 쇠사슬을 채우실 겁니다." 그는 몸을 돌려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내 말 못 들었나? 당장 그 더러운 쇠사슬을 벗어!"

세 명의 경비병이 뛰쳐나와 나사로의 옷을 벗겼다.

서기관은 툭툭거리며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 나사로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얼어붙어 주교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주교의 매서운 눈빛만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라자로에게 시선을 돌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당신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주교를 힐끗 쳐다본 후, 말아 놓은 양피지와 잉크병을 들고 방을 억지로 나갔다.

나사로는 제사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문제는 나중에 제 방에서 돌이켜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숙소로 가시죠." 그는 라자루스의 팔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의 미소는 곧 굳은 표정과 치켜든 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자유는 아닙니다. 달시쿠르 경계서 곧 만나 뵈게 될 겁니다." 주교는 몸을 돌려 병사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방 안이 텅 비고 문이 닫히자 나사로가 벤치에 앉았다. 온몸이 더럽고 머리카락은 피로 엉겨 붙어 있던 그는, 활활 타오르는 촛대 두 개 아래에서 상처와 멍을 달래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문이 다시 열리고 중년의 하녀와 그녀의 젊은 하녀 세 명이 들어왔다. 뚱뚱한 여자는 나사로만큼이나 키가 컸고, 그녀의 거대한 체격은 수수한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였다.

그녀는 뒤따라 들어오는 처녀들 중 한 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슴 아래에 비누, 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생용품으로 가득 찬 커다란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탁자 맨 끝 벤치에 앉아 있는 나사로를 살펴보았다.

나사로는 일어나 절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비행사시군요?" 그녀가 물었다. "라자루스 씨 맞으시죠?"

"저는 라자루스 고구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더 건강한 쥐도 봤어. 넌 정말 역겨워.” 그녀는 툭툭거리며 식탁 끝으로 걸어갔다. “여기서도 네 냄새가 나.” 쟁반을 내려놓으면서 그녀는 하녀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방 건너편에서 그를 뺨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하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통을 짹 짹 쥐고 있었고, 다른 하녀는 접힌 천 뭉치를 안고 있었으며, 마지막 하녀는 새 옷과 신발을 들고 있었다.

“자, 이리 와 봐.” 그녀가 그들을 꾸짖었다. “나사로 스님은 물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기독교인이시거든.” 그들은 뛰쳐나와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가 연고를 섞느라 바빴다. “나사로 선생님, 주인님께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신이 당신을 학대한 것에 대해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셨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장담합니다.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주님의 군대가 영토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대담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달시쿠르 경은 여전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시는 거죠?” 라자루스가 물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 잠시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겁니까?” 라자로가 테이블을 돌아 질문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 씨가 감혀 있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의 귀빈처럼 대접받으세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자신의 바로 뒤로 끌어당겼다. “여기 서세요.” 그녀는 테이블에서 비누통을 꺼내 그의 발치에 툭 놓았다.

“지금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를 훑어보고는 낄낄거렸다. “꼴이 말이 아니군. 나리께 알현하러 올 만한 물골이 아니니. 목욕이나 해야겠소. 자, 어서 시작하오. 가죽옷을 벗으시오.” 여자는 다시 쟁반 쪽으로 돌아섰고, 하녀들은 천사처럼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 그를 에워쌌다. 각자 양동이에서 비눗물 묻은 수건을 꺼내 짹 짹 닦았다.

라자루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들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옷을 벗으라고요? 지금 당장?”

“나리님을 뵙고 싶으시죠?” 그녀는 어깨 너머로 그에게 물었다.

“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

“아, 조용히 해. 난 아들 다섯을 키우면서 늘 이렇게 말했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단다.’ 이제 옷을 벗어. 내가 주인님을 위해 깨끗하게 씻겨 드려야 하니까. 내 명령이 있어. 네가 직접 벗든지, 아니면 내가 벗겨 주든지 해야 해.” 그녀는 열려 있던 연고병 뚜껑을 다시 닫고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주인님께서 네가 깨끗이 씻겨지길 바라서. 그리고 주인님께서 새 옷과 신발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가죽옷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

그녀 뒤에서 하녀 한 명이 숨을 들이켰다. 다른 하녀는 킁킁 웃었고, 여자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들에게 계속 훈계하듯 말했다. "단, ~하는 한—"

그러나 그녀는 몹시 당황한 채 서 있는 나사로를 발견했다.

"세상에!" 그녀는 손으로 뺨을 감싸며 목이 메어 말했다. 모든 시선이 라자루스의 비범한 외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하녀들에게 "자, 어서 시작해!"라고 소리쳤다. 하녀들은 달려 나가 비눗물 묻은 수건으로 그를 씻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고, 연고를 가져와 이마의 상처에 천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하녀들이 씻는 동안, 그녀는 그의 머리에 난 작은 상처들도 돌보았다.

"이 정도면 될 거예요." 그녀는 연고를 탁자 위에 놓고 깨끗한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더 깊은 상처는 흉터를 남기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을 거예요."

여자는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을 씻어주었다. "나사로 씨, 면도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머리 말고는 털이 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처럼 귀와 이빨이 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아야!" 라자로는 긴장했다.

"오, 가만히 있어. 난 널 해치지 않아."

"저놈들 때문이야." 그는 천장을 향해 투덜거리며 인정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모여 있는 듯한 세 아이의 머리 꼭대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릴리타! 너희들 아직 안 끝났니?"

세 아이 모두 활짝 웃으며 벌떡 일어섰다. "아, 네, 엄마."

"그럼 양동이를 옮겨서 그의 엉덩이를 씻겨 주세요." 여자는 그의 머리를 놓아주고 어깨를 씻겨 주었다. "팔을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나사로 씨, 날개를 펼쳐 주시면 안쪽도 씻겨 드리겠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사람들은 숨을 헐떡였지만 목욕은 계속 되었다.

마침내 여자는 그의 몸을 말리고 파우더를 발랐다. 그녀는 등 부분이 가운데로 잘린 하얀 프릴 셔츠를 들어 보였다. "날개를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지만, 이걸 입으면..."

"좀 번거롭긴 했지만요." 하지만 날개 위로 속 들어가 완벽하게 제자리에 맞춰졌다. "훌륭해요. 제가 좀 작게 만들었네요. 큰아들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개도 덩치가 컸거든요." 그녀는 앞부분을 여몄다.

"이게 그의 셔츠야?" 라자루스가 물었다.

"오, 안됐네요." 그녀는 씩 웃었다. "그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은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네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괴물, 휴건 경, 바로 악마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녀는 하녀 중 한 명에게서 검은 바지 한 벌을 빼앗아 그에게 주었다. "그의 군대는..." 그들은 마을 들판을 습격하여 내 남편과 다섯 아들, 그리고 두 딸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우리는 휴곤의 군대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그들을 죽였을까?"

"그는 괴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만 하죠.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그에게 검은 색 부츠 한 켤레를 건네주었다. "자, 이것 신으세요." 그녀는 탁자로 돌아섰고, 그녀와 하녀들은 집을 챙겼다.

그녀는 나사로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우리는 비누와 물로 당신을 씻기고, 피를 씻어내고, 연고를 발라 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쟁반을 다시 채우면서 그녀는 하녀 중 한 명에게 "그리고 가족을 가져오렴." 이라고 지시했다.

"네, 엄마."

그녀는 뚱뚱한 여자처럼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에게 소리쳤다. "아니에요, 나사로 선생님, 당신은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라자로가 주장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살폈다. 그러고는 허리에 손을 얹고 감탄하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지금 당신은 마치 하늘을 나는 왕자님처럼 멋지세요. 제 주인님도 저처럼 당신에게 꼭 빠지셔야 할 거예요." 라자로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자, 애들아, 다 챙기자. 우리 건 다 됐어." 여자는 쟁반을 들고 문으로 가서 노크했다.

나사로가 그녀를 향해 외쳤다.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라자루스 도련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게 벌써 두 계절이나 지났네요. 이런 순간의 소중함은 오직 과부만이 알 수 있죠."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지나간 계절들을 훑어보는 듯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비병이 그들을 들여보냈다. "안녕히 가세요, 라자루스 도련님." 그녀가 뒤따라오는 세 명의 짐을 진 하녀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네, 엄마." 라자루스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도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라자로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등 뒤로 깎지 낀 채 탁자 주위를 돌며 서성거렸다.

생각에 잠긴 날개 달린 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때때로 경계하는 눈빛으로 벽을 훑어보며 귀를 쫓긍거렸는데, 아마도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특유의 소리, 마치 메뚜기 떼가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를 알아내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었을 것이다.

짧은 체류 기간 동안 그는 금세 벽을 싫어하게 되었고, 대신 탁 트인 공간, 영원한 하늘이 주는 또 다른 안전함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귀빈이셨지만, 나사로는 더욱 강력한 지배자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대낮이 밝아져 작열하는 태양이 그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방을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수레에서 안전하게 벗어난 지금, 그에게는 더 시급한 걱정거리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달시쿠르 경이나 그 밖의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온전히 밤을 위해 창조된 존재 이면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창조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또한, 달시쿠르 경이 그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든, 그것이 죄악된 행위가 아니거나 낮에 해야 할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만약 것처럼 간단한 임무라면, 일단 완수하고 나면 그는

그는 살비티노 신부를 데려오고 문돌을 닫는 것을 돕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칸첼로로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텅 비어 마치 속이 텅 빈 무덤 같았던 그의 배에서는 극심한 허기가 울부짖었다.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코로 냄새를 맡았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냄새가 점점 진해지더니, 구운 돼지고기의 향기가 분명해졌다. 바깥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활짝 열렸다.

하인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하나씩 들고 줄지어 들어왔다. 라자로는 그들이 식탁으로 몰려들자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마치 왕에게 바치는 연회처럼 은쟁반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구운 돼지고기와 후추를 뿌린 공작새고기, 생선 필레, 부드러운 송아지고기와 구운 소고기, 구운 닭고기와 사슴고기 스테이크가 빼곡한 식탁 위에서 자리를 다투고 있었다.

삶은 달걀과 덩어리 치즈가 접시를 장식했고, 과일이 가득 담긴 쟁반과 견과류가 가득 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와인 주전자도 잔뜩 부풀어 올랐다. 테이블은 마치 거대한 콜라주처럼 펼쳐져 요리 예술의 걸작으로 변모했다.

하인들은 차례로 라자로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미소를 지은 후 방을 나갔다. 마지막으로, 마르고 나이 든 하인이 한 사람의 식탁을 차렸다. 그는 잔을 들어 와인을 따랐다.

“잔치가 열릴 예정인가요?” 라자로가 물었다.

“네, 라자루스 스승님.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는 꽤 쾌활해 보였다. 그는 손을 테이블 전체에 훑어보며 말했다. “모두 마음에 드십니까?”

“오, 안 돼.” 라자로는 고개를 저으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잔치를 살살이 훑어보았다.

그 엄청난 양에 압도당했다. “너무 많아. 나 죽을 것 같아. 이것 다 먹어야 해?”

“아니요.” 하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라자루스 주인님, 드시고 싶은 것만 드십시오.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물에 잠긴 듯한 접시와 잔을 가리켰다.

주변 음식으로.

나사로는 자기가 앉을 자리에 이르러 불평하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데! 여러 사람이 먹어도 충분할 텐데. 상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먹게 해 주십시오."

"오, 상하지 않을 겁니다, 라자루스 주인님." 하인이 씩 웃으며 테이블 너머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당신 덕분에 모두 함께 잔치를 벌일 겁니다. 영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축하하고 계시거든요. 당신께서 배불리 드신 후 남은 음식은 성의 모든 하인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념하는 건가요?"

"그는 나사로 씨를 기립니다."

"저요? 왜요?"

"글쎄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유를 짐작은 할 수 있지만요. 라자루스 스승님,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미소를 지은 하인은 자리를 떠났고, 라자로는 접시를 앞에 두고 기도했다.

잠시 후, 기도 십자가에 입맞춤을 한 라자로는 식탁으로 달려가 접시에 온갖 고기 요리를 가득 담았습다. 그는 한 접시 한 접시 흥미했습니다. 수도원에서 보낸 평생 동안 이렇게 훌륭한 연회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하 묘지에서 보냈던 날들, 그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망을 보았고, 라자루스는 식당에서 몰래 빼낸 고기나 치즈 조각들을 곁들인 바삭한 빵을 먹곤 했다. 그는 몰래 필사실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에는 왕과 영주, 성, 그리고 화려한 연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라자루스는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와인 저장고에 숨어들어 흥에 취한 뚱뚱한 수도사를 몰래 잡으려고 애썼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며칠 전 저녁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다. 겉으로는 씩씩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이었지만, 그는 오디노의 유쾌한 기운이 온 사방에 감도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그는 접시 옆에 놓인,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을 발견하고 그제야 그 술의 근원을 알아차렸다.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말로 그를 불렀다.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조금 마시도록 해. 네 위장도 안 좋고 자주 몸이 약하니까." 오디노의 호탕한 웃음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그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입맛을 다시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잔을 돌려 단숨에 비우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디노의 영혼에게 말했다. "냄새 보다 맛이 더 좋군." 그는 잔에 다시 포도주를 따르고는 공작새 다리 하나를 떼어냈다.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 라자로는 항아리를 두드리며 고기를 먹을 때마다 포도주로 입가심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즐거워졌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웃음을 터뜨리더니 자신과 음식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사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제야 알겠군, 자네가 지하실에 있는 동안 왜 그렇게 웃었나.” 그는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으며 천장을 향해 건배했다. “하늘에 계신 오디노 수사님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아무도 ”
옛것을 마시고 나면 곧바로 새것을 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옛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채웠다. 그는 잔을 든 채, 공작새처럼 뺨은 다리를 들어 올리다가 벤치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와인 이 셔츠에 튀어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잔은 방 한쪽 구석으로 굴러갔다. 커다란 닭다리를 여전히 쥔 채, 그는 옆으로 굴러 누워 취해서 킁킁거렸다.

나사로는 컵을 찾아 구석에 있는, 납작하게 썩어가는 쥐 옆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그는 쥐에게 말을 걸었다. "친구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클로디우스 수사가 너를 밟았니?" 그는 씩 웃으며 코웃음을 치고는 한쪽 팔로 어색하게 몸을 지탱했다. "쥐 주인님, 제가 날아다니는 사람인 걸 아십니까?" 라자루스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귀를 쫓긋 세웠다. "그럼 날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않겠다는 건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것 좀 먹어 보시오." 그는 닭다리를 쥐 쪽으로 거누며 말했다. "뭔가 먹어야겠소. 좀 마른 것 같소." 그는 흥얼흥얼하며 웃었다.

정신을 차린 나사로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그는 어눌한 목소리로 말했다. " 쥐 주인님, 꼭 알아야 한다면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 파리 어 날고 있어요 " 그는 신음하며 간신히 일어서려 애썼다. " 일어서 못 하겠어요." 마침내 탁자에 기대어 몸의 균형을 잡고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 내가 날았다고? 사람이 날았다고 맙소사."

마침내 그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테이블의 긴 가장자리를 따라 비틀거리며 내려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테이블에 기대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있는 벽에 멈췄다. 만취한 그는 벽의 돌들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들락날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복채를 들어 벽에 튕겼다. "이것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겠어?" 그는 벌떡 일어나 벽을 향해 소리 쳤다. "내가 너를 부른 적 없어!" 그는 벽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숨을 쉬고 들락날락하는 것은 오직 술에 취한 자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떠오른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싶은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갑자기 익숙한 소음이 점점 커지자 나사로는 깜짝 놀랐다. 마치 어떤 소리처럼 들렸다.

마치 메뚜기 떼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는 탁자 밑으로 허우적거리며, 소리가 갑자기 멈췄지만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맞은편 벽 아래쪽을 주시했다. 탁자 아래 그림자 속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반대쪽 벽을 바라보았고, 두 개의 물체를 발견했다.

맨발에 검은색 갈고리 같은 발톱이 나 있었다. 길고 구부러진 발톱의 날카로운 끝이 돌 바닥 위에 고르게 놓여 있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작은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맙소사!"

"그래요, 사랑하는 날아다니는 남자여." 여러 여인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입니다." 발들이 탁자 주위를 돌더니 벤치 아래에 자리를 잡고, 그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다. "자, 나사로 님, 제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제대로 죽는 법을 모르는 것 같군요."

그것이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나 혼자서만 너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나사로)

그는 침묵을 지키며 발소리를 따라 테이블 가장자리를 따라 무질서하게 걸어갔고, 발걸음은 때때로 멈춰다가 다시 움직이곤 했다.

"당신의 잔치는 죽음으로 가득 찬 제단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머리로 잘리고, 다리로 잘리고, 내장도 꺼내지고, 사지도가 갈라지고, 불에 타고, 삶아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나사로 스승님,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십니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진 나사로는 배를 움켜쥐었는데, 배가 계속해서 들썩이는 것을 발견했다.

"네가 개네들을 먹었잖아. 개네들 고통이 들리나?" 그는 극심한 경련에 휩싸여 누웠다.

그는 옆으로 누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배를 움켜쥐었다. 그때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뱃속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마치 죽어가는 쥐들이 내는 비명 소리가 뒤섞인 것 같았다.

"라자루스 스승님, 그들이 왜 비명을 지르는지 아십니까?"

라자루스는 발자취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곳을 돌아보았지만 발자취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다시 몸을 굴러 루사파엘의 얼굴이 자신의 위로 드리워진 것을 보았다. 검은 눈동자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라자루스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네가 빵을 먹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대신 넌 그들을 먹어버렸지!" 그녀는 으르렁거렸다. "넌 그들의 영혼까지 먹어치웠어, 엘조!" 그녀는 날카롭게 갈아놓은 뼈로 만든 낡은 가죽 벗기는 칼을 꺼내 그의 뺨과 입술을 조심스럽게 스쳤다. "자, 이제 이 탁자 위에 누워!"

그녀가 팔을 크게 휘둘러 탁자를 치우자 음식이 흩어지고 접시들이 발치의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때 우아하고 품격 있었던 귀족의 연회는 이제 더러운 바닥 위에 엉켜 있는 알아볼 수 없고 역겨운 더미로 변해 있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발을 보았던 테이블 밖에 서 있었다. "자, 테이블 위에 눕자. 우리가 그들을 되살릴 거야. 새 생명을 줄 거야! 자, 일어나!"

라자루스는 탁자 아래에서 몸을 떨며 그녀의 길고 검은 발톱이 있는 발가락을 응시했다.

"일어나라, 나사로 씨!"

[제14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